

Cassirer의 言語哲學

崔 明 官*

- I. 序 言
- II. Cassirer의 哲學的 立場
- III. Cassirer의 問題와 方法
- IV. 言語哲學에 대한 歷史的 考察
- V. Humboldt의 言語哲學的 思想
- VI. 言語의 여러 層
 - ① 感覺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 ② 直觀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 ③ 概念的 思考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 ④ 論理的 關係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 VII. 結 語

I. 序 言

Ernst Cassirer는 認識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술했을 뿐 아니라, 또한 言語에 대하여도 깊이 哲學的으로 고찰하고 저술하였다. 그는 言語를 특히 人間의 精神의 特有的 自發的 活動이라는 觀點에서 고찰하였다. 그의 主著『象徵形式의 哲學』(*Die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은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第1卷은 言語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923년에 刊行되었으며, 1925년에는『言語와 神話』(*Sprache und Mythos. Ein Beitrag zum Problem der Götternamen*)란 책을 지어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어로 나온 두 권의 책에서도 言語를 다루었는데,『人間論』(*An Essay on Man*)에서는 言語를 象徵形式의 하나로 人間世界의 不可缺의 한 要素로서 고찰했으며,『國家의 神話』(*The Myth of the State*)에서는 神話와의 關聯에서 言語를 문제삼았다. 하여간 Cassirer의 哲學에 있어서 言語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言語에 관한 그의 根本思想은 위에 言及한『象徵形式의 哲學』 第1卷『言語』(*Die Sprache*)에 전개되어 있다. 이 책 속에는 많은 言語學者들의 研究가 검토되고 또 資料로 驅使되고 있는데, 그 言語學者들은 대부분 독일인이다.『人間論』은 1944년에 刊行되어 나왔고, 그 속에는 새로운 資料들이 취급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英美系統의

* 文理科大學(서울) 哲學科 教授

것이고, 이밖에 Ferdinand de Saussure, Jespersen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Cassirer의 言語哲學의 根本的 思想과 原理는 『象徴形式的 哲學』 第1卷에 모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 책과 『人間論』을 中心으로 Cassirer의 言語哲學을 정리하여 소개하려 한다.

II. Cassirer의 哲學의 立場

Cassirer는 新 Kant學派의 여러 分派 중 Marburg學派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Kant의 先驗的 觀念論의 立場에서 世界와 人間을 본다. 그러나 Kant와 그 後繼者들이 주로 認識을 문제삼고, 그 哲學的 考察이 道德과 藝術까지로 限界지어졌던 데 대하여, Cassirer는 이 限界를 넘어 文化一般에 대한 哲學的 考察을 試圖하여, 宗教·藝術·科學만 아니라, 人間精神의 特有的 機能이 나타나는 限에 있어서 또한 神話·言語·歷史를 문제삼았다. 과연 그의 哲學은 理性批判을 넘어 文化批判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하여 理性批判은 文化批判이 된다. 이 批判이 이해하고 立證하려는 것은, 文化의 모든 內容이 한갓 個別的 內容 이상의 것인 限, 또 하나의 普遍的인 形式原理에 기초하고 있는 限, 精神의 根源的 活動을 前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觀念論의 根本데에제가 그 본래의 완전한 證明을 얻는다. 哲學的 考察이 그저 순수한 認識形式의 分析에만 관계하고 이 課題에 局限되어 있는 限, 素朴實在論의 世界觀의 힘을 완전히 깨부술 수 없다.¹⁾

이 말 속에는 그의 觀念論의 立場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 있고, 또 文化가 人間의 精神의 根源的 活動에 緣由한다고 하는 그의 根本思想이 제시되어 있다.

Cassirer의 象徴形式的 哲學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觀念論의 思想이 貫流하고 있다. 言語에 관해서는, 모든 精神의 基本機能과 마찬가지로, 그 哲學的 解明을 오직 哲學的 觀念論의 全體의 體系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確信을 Cassirer는 表明하고 있다.²⁾ 言語는 象徴形式的의 하나로서, 人間精神의 象徴的 機能의 所産이다. 이러한 所産들 가운데는 言語 이외에, 神話·宗教·藝術·歷史·科學 등이 있다. 이것들은 文化形式이요 또한 象徴形式이다.

人間은 象徴(Symbol)들을 창조해내며, 그가 만들어낸 이 썬들들에 둘러쌓여 산다. Cassirer는 人間을 “象徴의 動物”(animal symbolicum)이라고 定義했는데,³⁾ 이것은 人間이 文化的 動物임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人間의 여러가지 文化的 所産은 人間의 精神의 構成物이요, 이 構成物들은 人間의 精神의 象徴的 機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人間은 이 構成物들을

1)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I, (1964年度版) S. 11

2) *Ibid.*, Vorwort, IX.

3) *An Essay on Man*, p. 26.

통해서 世界와 關係하며 交渉하면서 生活한다.

Symbol 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Cassirer 는 여러 군데서 解明하고 있다. 『人間論』에서는 Symbol 과 sign 사이의 差異를 例示하면서 sign 은 動物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Symbol 은 오직 人間의 세계에 특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Symbol 에는 sign 에 없는 要素로서 意味의 要素가 하나 더 있다. Symbol 에는 意味가 있다. 人間이 世界와 自己 사이에 Symbol 을 두고 생활한다는 것은, 그 Symbol 들을 통해서 世界를 보며, 모든 事物의 意味를 생각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人間의 世界는 Symbol 의 世界요, 동시에 意味의 世界라고 할 수 있으며, 人間은 意味를 追求하는 動物이라고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人間은 animal symbolicum 인 것이다.

『象徴形式的 哲學』에서는 Heinrich Hertz 의 『力學의 原理』(Die Prinzipien der Mechanik) 의 序論에 있는 “內的 虛像 즉 冚불”(innere Scheinbild oder Symbole)이라는 말을 引用하면서, 科學의 基礎概念의 冚불의 性格을 가장 일찌기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自覺한 것은 특히 數學的·物理學的 認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Symbol 은 한갓 受動的인 寫像(Abbild)이 아니고, 創造的인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認識의 素朴한 模寫說(Abbildtheorie)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모든 科學의 基礎概念, 즉 科學이 그것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제거하고 그 解答을 定式化하는 道具는, 더 이상 어떤 주어진 存在의 受動的인 寫像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知的 冚불(Selbstgeschaffene intellektuelle Symbole)이라고 생각된다.⁵⁾

이 말 속에는 科學에 있어서의 Symbol 들의 自己創造的 性格이 지적되어 있거니와, Symbol 의 이러한 性格과 機能은 科學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人間精神의 普遍的 性格이요 機能이다. Symbol 들은, 種類가 같지는 않지만, 神話에서도 宗教에서도 藝術에서도 作用한다. 그 Symbol 들은 자기 그 영역에서 主觀的으로 또 獨創的으로 世界를 把握하고 世界와 交渉하는 媒介物이다. 여기 관하여 Cassirer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精神의 참된 根本機能은 모두, 한갓 模寫하는 힘만 아니라, 根源的으로 像을 만드는(ursprünglich-bildende) 힘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決定的 特徵을 認識과 共有하고 있다. 精神의 根本機能은 앞에 있는 것을 그저 受動的으로 表現하는 것이 아니고, 精神은 자기 속에 自立的인 에베르기를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한갓 現象에 지나지 않는 것이 一定한 “意味”, 하나의 獨自的인 理念의 內容을 얻는다. 이것은 認識에 대해서 그러한 것처럼, 藝術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宗教에 대해서처럼 神話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것들은 모두 獨自的인 像世界(Bildwelten)에 살고 있는 바, 이 像世界에서는 經驗的 所與가 그저 反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것들이 이 經驗的 所與를 產出한다. 이와 같이 저것들은 자기 자기 스스로의 象徴의 形態들을 創造하는데, 이 形態들은 知的 象徴들

4) *Ibid.*, p. 31~36.

5) *Ph. d. s. F. I*, S. 5.

과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精神에 根源을 갖는 점에서 同等하다. 이 形態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에 同一化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끌어내어질 수는 없고, 그 하나하나가 特定한 精神的 把握方式을 드러내며, 또 자기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現實의인 것”의 독특한 側面을 構成한다.⁶⁾

Cassirer는 이러한 그의 根本思想을 여러 군데서 表明하고 있다. 요컨대, 言語, 神話, 宗教, 藝術, 科學 등은 각기 그 나름의 像世界를 가지고 있고, 이 像世界를 통하여 이것들은 각기 現實의 世界를 構成한다. 또 이것들은 外的 存在나 內的 存在의 所與를 그쳐 反映만 하는 거울이 아니고 스스로 독자적인 形成作用을 한다. 이 形成作用들은 自由로운 精神的 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意味에서 神話, 藝術, 言語, 科學은 存在에 대한 刻印(Prägung)이다. Goethe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이 象徵形式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啓示, “世界와 精神의 綜合”이다.

言語形成에 관해서 말하면, 그 過程은 直接的 印象들의 混沌에다가 이름을 붙이고(benennen) 그리하여 言語의 思考와 言語의 表現의 機能을 침투시키므로써 그 混沌이 밝아지고 秩序가 잡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言語記號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印象의 世界가 전혀 새로운 存在狀態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인간은 새로운 精神的 分節化(geistige Artikulation)를 획득한다. 요컨대, 言語는 自我와 世界의 새로운 綜合이 창조될 때 成立하는 것이지만, 意味한다(Bedeuten)고 하는 根本機能은 個個의 記號의 設定 이전에 존재하며 작용하고 있다. 모든 言語表現은 결코 주어진 感覺이나 直觀의 세계를 판에 박은듯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속에 “意味 附與”(Sinngabung)라고 하는 特定한 自立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Ⅲ. Cassirer의 問題와 方法

Cassirer가 관심을 두고 解明하려고 試圖한 것은 言語의 本質이다. 그런데 한 마디로 言語라 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無數한 言語 내지 特有語(idiom)가 있어 왔다. 言語는 가지각색이고 多樣하다. 言語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 도대체 言語란 무엇인가고 묻고 言語의 本質을 究明한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는 같다. 言語에 관한 見解와 學說도 無數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言語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어리둥절하고 어디서부터 착수해야 할는지 잘 알 수 없는 듯도 하다. 이와 같은 狀況을 Cassirer는 “人間的 말의 복잡하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迷路”⁷⁾ 혹은 “人間的 말의 大海”⁸⁾라고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言語의 本質을 탐구함에 있어 Cassirer는 그쳐 主觀적이고 空虛한 觀念論的 理論을 전개하지 않는다. 문제를 생각해 나아감을 따라 참고해야 할 言語學의 文獻

6) *Ibid.*, S. 9.

7) *An Essay on Man*, p. 128.

8) *Ibid.*, p. 129.

이 굉장히 많아지고 연구의 목표가 더욱 멀어져가서 과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다고 Cassirer 는 고백하고 있다.⁹⁾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 많은 言語學의 文獻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의 方法은 言語研究의 問題들을 體系的 普遍性에 있어서 定式化하고 이 問題들에 대한 解答은 그 하나하나의 경우에 經驗的 研究 자체로부터 획득하는 것이었다.¹⁰⁾ Cassirer 가 참고한 言語學의 文獻은 참으로 광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이 文獻이나 資料에 사로잡힘이 없이 그의 獨自的인 言語哲學을 전개하였다. 혹은 이 모든 文獻에 대한 批判的 考察에서 자기의 象徵形式的 哲學의 原理를 確認했다고 하겠다.

Ⅳ. 言語哲學에 대한 歷史的 考察

Cassirer 는 그의 言語哲學을 전개함에 있어, 먼저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言語學說 내지 言語哲學을 遺漏 없이 批判的으로 검토한다. 『象徵形式的 哲學』에서는 第1部 第1章「哲學史에 있어서의 言語問題」에서 古代의 神話的 言語觀으로부터 Platon, Descartes, Locke, Herder 등의 哲學的 言語理論과 Humboldt 의 위대한 構造主義的 言語哲學을 거쳐 現代의 科學的 言語研究에 이르기까지 言語에 관한 갖가지 思想과 理論을 훑어보면서 批判的 考察을 하고 있다. 『人間論』에서는 이러한 歷史的 考察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이 『人間論』의 서술을 따라 言語哲學에 대한 Cassirer 의 歷史的·批判的 考察을 우선 간단히 더듬어보기로 한다.

『人間論』은 「言語」의 章을 “言語와 神話는 가까운 친척이다”¹¹⁾란 말로 시작하고 있다. 人間의 文化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神話와 言語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Max Müller 같은 학자는 神話가 言語의 病이요 思考의 病이라고 말하였다. 神話는 言語의 混同과 思考의 混亂에서 생겼다는 것이다. Cassirer 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神話는 人間의 原始的인기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진지한 世界理解의 努力이요 이러한 努力을 위한 根本的 活動인데, 이 活動을 한갓 精神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神話 역시 그 나름의 像世界를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옛날사람들은 人間의 말을 神話的으로 생각했음도 사실이다. Carmina vel coelo possunt deducere lunam(노래는 하늘로부터 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이라고 하는 魔術의 말은 옛날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말이 魔術的인 힘을 지니지 못하는 것임을 쉬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고 말이 아무 意味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은 무엇인가를 意味하는 機能(semantic function)을 가지고 있고, 論理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Herakleitos 는 말(Logos)을 宇宙의 秩序와 眞理의 原理로

9) Ph. d. s. F. I, Vorwort, VIII

10) Ibid., Vorwort, VII.

11) An Essay on Man, p. 109.

생각하였다. 이러한 形而上學的 言語觀은 오늘날까지 그 魅力을 잃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言語觀은 神秘的 性格을 띠고 있다. B.C. 5世紀頃의 Sophistes들은 대뜸 이러한 言語觀을 거부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말은 客觀的인 眞理나 對應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은 事物을 記述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感情을 뒤흔들어 行動케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言語觀, 즉 神話的, 形而上學的, 實用的 言語觀은 言語의 本質의 核心을 뚫지 못하고 그 一面만을 건드렸을 따름이었다. 이 세 가지 言語觀 외에, 古來로 有力한 두 가지 言語觀이 있는데, 하나는 擬聲說(onomatopoeic thesis)이고, 다른 하나는 表出說(interjectional theory)이다. 擬聲說은 對象과 그 名稱 차이의 音聲의 類似性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시냇물이 줄 줄 흐른다”고 말할 때의 ‘줄 줄’ 같은 表現은 自然的 對象의 音聲을 模倣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끌새’나 ‘각뚜기’ 같은 낱말은 擬聲說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직하다. 그러나 自然의 소리의 模倣도 民族마다 또 特有語마다 다르다. 거기에도 人間의 精神의 主觀性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擬聲說은 매우 自然스러운 見解이어서, 自然의 소리를 떠난 낱말들도 그 根源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擬聲의 혹은 擬態的 起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 19世紀까지만 해도 많이 연구된 語源學은 이러한 前提에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言語의 복잡하고 깊고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擬聲的인 낱말들은 극히 적다.

擬聲說은 對象의 소리를 模倣한다는 데 重點을 두는 反面, 表出說은 主觀의 側面에만 注意한 學說이라 하겠다. 人間의 말이 한갓 情動的 性格을 지닌 어떤 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說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Demokritos였다. 그후 이 見解는 Epikouros, Lucretius, Vico, Rousseau 등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그리고 表出說은 Darwin의 進化論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는 듯 싶었다. Darwin은 『人間과 動物들에 있어서의 情動的 表現』(*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이란 著書에서 情動을 나타내는 소리나 행동이 어떤 生物學的 要求에 의하여 일어나며 一定한 生物學的 規則을 따라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도대체 進化論은 動物의 種들 간의 質的 差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物의 소리처럼은 人間의 言語의 原型이라고 할 수 있게도 된다. 그러나 Cassirer는 動物言語의 說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動物言語”(animal language)는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主觀的이요 갖가지 感情狀態를 표현하기는 해도 對象을 指示하거나 記述하지는 못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¹²⁾ 人間 이외의 動物에게는 情動的 言語(emotional language)는 있어도 命題的 言語(propositional language)는 없다. 前者로부터 後者로의 移行은 metapsis eis allo genos 즉 전혀 다른 種에로의 轉換이요 飛躍이다. 한편, 人間은 가장 낮은 文化의 段階에 있었을 때에도 한갓 情動的인 言語나 몸짓 言語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한 歷史的 證據가 없다.

Otto Jespersen은 表出說의 立場에서 출발하여 교묘한 理論을 提唱하였다. 그에 의하면,

12) *Ibid.*, p. 116.

싸움터에서의 승리의 소리처럼이나 노래에 사용된 음聲들이 거기 관련된 어떤 人物이나 事件을 가리키는 名稱으로 變形(transformation)되어 낱말들이 생기고, 이것들은 比喩的 轉用(metaphorical transference)에 의하여 비슷한 狀況에 쓰이게끔 계속 발전하였다. 言語는 “傳達性(communicativeness 즉 意思疎通)이 感情表出性(exclamativeness)에 대해서 優位를 차지할 때” 생긴다. 이러한 Jespersen의 說에 대하여 Cassirer는 感情表出로부터 傳達에로의 前進은 이 說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延遲되어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¹³⁾

Grace de Laguna의 學說에 대하여도 Cassirer는 비슷한 批判을 가하고 있다. de Laguna는 소리처럼으로부터 말에로의 移行을 漸次的 客觀化의 過程이라 보고 있다. 이 客觀化, 그리고 體系化는 바로 人間의 言語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런데 한갓 表出만을 내세우는 學說이 어떻게 이 決定的 段階를 설명할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다고 Cassirer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de Laguna 教授의 說明에서 感情表出과 이름 사이의 틈(gap)은 메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一般的으로 말하여, 말이란 한갓 感情表出의 상태로부터 발전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던 학자들이. 결국, 感情表出과 이름의 差異는 이것들의 想像된 一致보다 더욱 더 크고 더욱 더 두드러진 바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¹⁴⁾

이와 같은 批判은 Cassirer의 根本立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人間의 言語는 이른바 動物의 言語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生物學的·科學的으로 한결같이 연구될 수 없는 것이요, 人間의 精神의 특유한 機能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象徵形式的 哲學』에서는 擬聲說과 表出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綜合的으로 批判하고, 나아가 言語의 成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言語는 그 최초의 形成에 있어서 內的인 것의 表現일 뿐더러 또한 外的인 것의 表現으로도, 한갓 主觀性의 表現일 뿐더러 또한 客觀性의 表現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言語音聲이란 다름아닌 刺戟 및 感情의 音聲이요, 後者의 경우에는 단순한 模倣音聲이라고 생각된다. “言語의 起源”에 관하여 표명된 갖가지 思辯的 見解는 사실상 이 두 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言語 자체의 核心과 그 精神의 本質을 찌른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言語를 통하여 表示되고 表現되는 것은 一方으로 主觀的이기만 한 것도 또 一方으로 客觀的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 言語 속에는 이 두 要因 사이의 새로운 媒介, 독자적인 相互規定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갓 感情의 表出도, 客觀的인 音聲刺戟의 反復도 言語의 特徵이 되는 意味와 形式을 드러내는 것이 못된다: 그 두 極이 결합되어 하나가 되고 그리함으로써 “自我”와 “世界” 사이에 전에는 없던 새로운 綜合이 創造될 때 비로소 言語는 成立하는 것이다.¹⁵⁾

13) *Ibid.*, p. 117.

14) *Ibid.*, p. 117.

15) *Ph. d. s. F.*, I, S. 26.

V. Humboldt의 言語哲學의 思想

Cassirer는 Wilhelm von Humboldt를 위대한 言語學者요 또 위대한 哲學的 思想家라고 말하고 있다.¹⁶⁾ 그는 Humboldt의 著作으로부터 많은 引用을 하고 있고, 또 Humboldt의 思想에서 많은 것을 섭취하고 있다. 그는 Goethe를 위대한 藝術家로 보며 Ranke를 위대한 史家로 보면서, 이들로부터 藝術과 歷史에 대한 깊은 洞察을 얻고 있거니와, 言語에 관하여는 Humboldt로부터 중요한 洞察을 많이 얻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간단히 Humboldt의 言語哲學의 思想을 Cassirer의 觀點에서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象徴形式的 哲學』에서 Cassirer는 Humboldt를 특별히 한 章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서 言語에 관한 Humboldt의 思想의 세 가지 主要契機를 論하고 있다. 첫째로, Humboldt에게 있어서 言語는 個人的 精神과 “客觀的” 精神의 分離, 그리고 이 分離의 再止揚이다. 둘째로, Humboldt에게 있어서는, 言語에 대한 考察마다 “發生論的으로”(genetisch)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言語는 素材와 形式의 綜合이다.

Cassirer가 지적하는 Humboldt에게 있어서의 言語의 根本的 契機 내지 性格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言語의 첫째 契機에 관하여, Cassirer는 다음과 같은 Humboldt의 말들을 引用하고 있다.

言語는 하나의 眞正한, 說明할 수 없는 奇蹟으로 한 國民(Nation 혹은 民族)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고, 또 날마다 우리가 거들 되풀이하고 無關心하게 看過하지만 역시 놀라운 일로서, 모든 어린이의 의미나 말로부터 튀어나온다. 言語는, 人間이 그 자체 絶緣된 個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나(Ich 自我)와 너(Du 他我)는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概念일 뿐더러, 또한 그 分歧點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정녕 同一한 概念이라는 것……의 빛나는 증거, 가장 확실한 證明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理解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터이니까. …言語는 個別化하는 중에 또한 結合시키고, 가장 個別的인 表現의 外被 속에 普遍的 理解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個人은, 그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살진, 그의 種族 전체의 한 斷片이요, 言語는 個人的 運命과 世界의 歷史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원한 連繫를 證明하고 밀받침한다.¹⁷⁾

Humboldt의 言語哲學의 이 최초의 形而上學的 考察 속에는 Kant의이고 Schelling의인 要素가 짙게 침투해 있다고 Cassirer는 지적하고 있다. Humboldt는 經驗을 무시하지 않는다. 言語研究에 있어서는 物體的인 것의 아주 無味乾燥하고 機械的인 分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늘 강조하였다. 그리고 客觀的인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戰取

16) *An Essay on Man*, p. 120.

17) Humboldt, *Über die Verschiedenheiten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Vorstudie zur Einleitung zur Kawiwerk); Gesamm, Schriften(Akademie-Ausgabe), Bd. VI, 1, 125f. (*Ph. d. s. F.*, I, S. 101).

되어야 한다. 그런데 言語는 한갓 主觀的인 것도, 客觀的인 것도 아니다. 認識과 마찬가지로 言語는, 주어진 것으로서의 對象에 由來하여 그 對象을 그저 자기에게 刻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言語는 자기 속에 하나의 精神的 把握方式을 간직하고 있고, 이것이 客觀的인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表象 속에 決定的 要因으로서 들어간다. 個個의 言語는 제각기 자기의 精神的 把握方式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言語의 多樣性은 音聲과 記號의 多樣性이 아니라, 世界觀(Weltansichten)의 多樣性이다.” 이 말 속에 Humboldt의 言語研究 전체의 기초와 最終目的이 들어 있다. Humboldt는 여기서 Leibniz에게로 되돌아가고 있다. Leibniz에게 있어서, 宇宙는 모나드(Monad)들을 통한 反映으로만 주어지고, 모나드 하나하나의 자기 하나의 個別的 “觀點”에서 現象들 전체를 제시한다. 우리가 現象들의 客觀性이라든가 現象世界의 現實性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觀點에서 본 것의 總體요 그 相互間的 調和다. 이와 마찬가지로 Humboldt에게 있어서 個個의 言語는 그와 같은 個別的 世界觀이다. 달을 헬라스語에서는 *μήν*(測定 하는 것)이라 하고, 라틴語에서는 Luna(빛나는 것)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世界觀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例다.

Cassirer가 보는 바, Humboldt의 言語考察의 둘째 根本契機는, 言語에 대한 考察마다 “發生論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發生論的으로”라 함은, 言語의 時間的 成立過程을 더듬고, 그 生成을 一定한 經驗的, 心理學的 原因에서 解明하려 한다는 意味가 아니고, 既成의 言語形成의 構造(Gefüge)를 派生的인 것, 媒介된 것으로 보고, 이 構造를 여러 因子들로 構築하고 또 이 因子들의 種類와 傾向을 規定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構造가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意味다. 發生論的이라 하여 보통 생각하는 意味에서 言語의 發生 즉 言語의 起源을 깨자는 것이 아니다. Humboldt는 그 起源을 알 수 없는 여러 言語를 연구하였다. 그는 오스트로네시아의 言語들, 즉 인도네시아語와 멜라네시아語의 比較文法을 최초로 썼다. 起源을 알 수 없는 言語를 연구하는 유일한 길은 그 構造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構造로부터 그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世界觀도 드러날 터이다.

發生論的으로 言語를 볼 때, 言語는 이미 만들어진 것(Ergon, Werk)이 아니고, 하나의 活動(Energie, Tätigkeit)이다. Humboldt에게 있어서 言語에 대한 唯一의 참된 定義는 發生論的인 것(eine genetische)으로서 곧 다음과 같다. “言語는 分節된 音聲을 思考의 表現이 되게끔 하려는 영원히 거듭되는 精神的 作業이다.”(Sie ist nämlich die sich ewig wiederholende Arbeit des Geistes, den artikulierten Laut zum Ausdruck des Gedankens fähig zu machen.)¹⁸⁾ 言語는 낱말들의 機械的 集合이 아니다. 言語를 낱말들로 分解하는 것은 그 組織과 統一을 파괴하는 것이다. 言語的 意味의 참된 擔持者는 낱말이 아니고 文(Satz)이다. 여기에는 言語를 有機體로 보

18) Humboldt, *Über die Verschiedenheiten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1836, S. 57. (Ph. d. s. F., I, S. 104)

는 浪漫主義의 思想이 흘러 있고, 또 言語의 內的 形式에 대한 깊은 洞察이 들어 있다고도 하겠다.

셋째로 Humboldt 에게 있어서 言語의 契機가 되는 것은 素材 (Stoff)와 形式(Form)의 統一 내지 綜合이다. 言語에 있어서 雜多한 概念들은 思考의 特定한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言語的 自己意識의 새로운 作用이요, 이로써 個個의 事例, 個別的 낱말이 言語에 있어서의 可能한 事例들의 全體에 관계지어진다. 可能한 限 순수하고 깊게 수행되고 또 言語 자체에 단단히 同化된 이 操作에 의하여 비로소, 바로 그 融合과 從屬의 操作 속에서, 思惟로부터 발하는 獨立的 活動과, 전혀 受動的으로 外的 印象을 따르는 活動이 결부되는 것이다.”¹⁹⁾ 요컨대, 素材와 形式은 言語過程을 구성하는 제각기 흩어진 斷片이 아니고, 그 發生的 過程 자체에 必然的으로 共屬하는 要因들이다. 한편, 形式은 素材보다 優越하다. 그러나 이 優位는 時間的 優先이 아니고, 價値의 優位다.

現代의 著名한 言語學者 Noam Chomsky 는 『데카르트의 言語學: 合理主義 思想의 歷史의 한 章』(*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에서 Humboldt 를 문제삼고 있다. Descartes 자신은 言語學이나 言語哲學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저술한 바 없다. 다만 『方法序說』에서 人間의 言語에 대하여 짧은 그러나 매우 意味深長한 考察을 記述하고 있고, 몇몇 편지에서 言語에 관한 言及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方法序說』에서 Descarte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신체를 닮고, 사실상 가능한 한 우리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기계가 있다면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정한 인간일 수 없음을 아는 아주 확실한 두 가지 수단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그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알게 할 때처럼, 말을 사용하거나, 또 말을 꾸려서 다른 信號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기계가 말을 발하도록, 심지어는 그 器官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物體의 作用을 따라 어떤 말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 기계의 어떤 곳에 손을 대면, 우리가 그것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가; 다른 곳에 손을 대면 아프다고 소리치른다는가, 이밖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기계가,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둔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들을 갖가지로 배열해서, 자기 앞에서 말해지는 모든 것의 의미에 응답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 둘째는, ...그것들이 認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器官들의 配置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사람과 짐승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둔한 바보라 할지라도, 또 백치라 할지라도, 갖가지 말을 함께 배열하고, 그 말들로써 이야기를 구성하여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알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이와 반대로, 다른 동물 가운데는, 아무리 완전하고 또 아무리 훌륭한 素質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器官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까치와 앵무새는 우리들처럼 말을 발할 수 있으나, 우리들처럼, 즉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말할 수는 없기 때

19) Humboldt, *Vorw. zum Kawi-Werk* W. VII, 1, 109. (*Ph. d. s. F.*, I, S. 107)

문이다.²⁰⁾

人間이 갖가지 말을 갖가지로 배열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Chomsky 는 “言語使用의 創造의 特性”(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이라고 부르고 있다. Cordemoy 는 이러한 Descartes 의 觀察을 하나의 言語學에로 발전시켜, 『말의 物理學的 序說』(*Discours physique de la parole*, 1666)을 저술하였다.

人間의 言語의 本質의 特徵으로서의 言語使用의 創造의 特性에 대한 Descartes 의 強調은 包括的인 一般의 言語學說을 전개하려는 Humboldt 의 企圖에서 가장 힘차게 표현되었다고 Chomsky 는 말하고 있다.²¹⁾ Humboldt 에게 있어서 言語는 “죽은 만들어진 것”(ein todtes Erzeugtes)이 아니고, “하나의 創造”(ein Erzeugung)다. Humboldt 의 생각으로는, 어떤 言語의 辭典도 “다 完成되어 주어져 있는 낱말들의 무더기”(fertig daliegende Masse)가 아니다. 새 낱말들의 形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의한 辭典의 使用도 “言語形成 能力의 계속적 창조와 재창조”(ein fortgehendes Erzeugnis und Wiedererzeugnis des wordbildenden Vermögens)²²⁾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言語를 획득함에 있어서 그럴 뿐더러, 또한 日常的인 言語使用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Humboldt 는 辭典을 그저 記憶된 낱말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言語를 사용할 때 필요한 말을 찾아내게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事項을 産出하는 發生論의 原理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Humboldt 에게 있어서 말이 생각과 自己表現의 도구임은 두말할 것 없는 일이다. 여기에도 Descartes 的 要素가 있다. 言語는 人間의 精神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여기에 言語의 보편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言語마다 “思想世界”를 가지고 있고, 제각기 자기의 世界觀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Humboldt 는 Descartes 의 言語學의 테두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떠나며, 浪漫主義의 言語觀을 채택하고 있다고 Chomsky 는 지적한다.²³⁾ 그러나 또한 Humboldt 가 言語를 動物에서와 같은 意思疎通의 體系로 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自己表現의 수단으로 보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Descartes 的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²³⁾

Chomsky 가 Humboldt 의 言語觀이 그의 社會·政治學說 및 人間性에 대한 생각을 背景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²⁴⁾ Humboldt 는 독일에 있어서 人間의 自然的 權利를 옹호하고 權威主義의 國家에 대한 反對의 사상을 가장 뛰어나게 주장한 사람

20) *Oeuvres de Descartes* (publié par Charles Adam & Paul Tannery), VI, *Discours de la méthode*, pp. 56~57. 拙譯『데카르트 選集』중『方法序說』pp. 69~71.

21) Noam Chomsky,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 1966. p. 19.

22) Humboldt, *Über die Verschiedenheiten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1836, S. 125~126.

23) Chomsky, *op. cit.*, p. 21.

24) *Ibid.*, p. 24.

이었다고 한다. 그는 人間이 意味있는 창조적인 일과 구속받지 않는 사상을 통해서 個性을 발전시키는 權利를 옹호하는 중에, 지나친 國家權力을 배격하였다. Chomsky 가 引用한 Humboldt 의 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自由 없이는 아무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직업도 아무런 유익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人間の 自由意志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그의 本性의 一部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에게 영원히 낯선 것인 채로 있다. ……外部의 統制로부터의 自由라는 條件下에서 모든 農夫와 職工도 藝術家가 될 수 있다. 즉, 자기의 일을 그 자체에 있어서 사랑하고, ……자기자신의 知的 에너지를 배양하고, 자기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는……사람이 될 수 있다.²⁵⁾

自我實現은 人間の 基本的 要求다. 國家의 統制는 이 人間の 要求와 兩立할 수 없다. 國家의 統制는 근본적으로 強制的이요, 사람을 기계 같이 만들며, 單調로움과 千篇一律의인 지루함을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스스로 자기자신의 個性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이고 制限받지 않는 自由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思想의 自由를 제한하면 破滅的인 結果들을 초래하며, 정부가 宗教的 禮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거나 高等教育에 간섭하면 有害할 뿐이다. 또 人間的인 權利들은 어떤 국민에게 있어서나 그 少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몇몇 사람의 人間的으로 되려는 權利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생각 속에는 人類에 대하여 전적으로 타락시키는 무엇이 있다”고 Humboldt 는 말하고 있다.²⁶⁾

VI. 言語의 여러 層

言語에는 感覺的인 것에서 아주 精神的인 것에 이르는 어간에 여러 層이 있다. 처음의 層은 感覺的이고 具體的인 것이다. 이 層의 낱말들이 言語發展에 있어서 맨 먼저 생겼으리라 생각된다. 이 낱말들은 우리의 생활의 周邊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하늘’, ‘땅’, ‘사람’, ‘물’, ‘산’, ‘나무’……등등은 우리 말에서나 다른 나라 말에서나 인간의 언어의 역사에서 최초로, 혹은 적어도 초기에 지어진 것들이라 생각된다. 이런 낱말들에 비하여,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일’이라든가는 앞의 낱말들보다 뒤에 생겼을 것이다. 하여간, “인간의 言語는 최초의 비교적 具體的인 상태로부터 보다 抽象的인 상태로 進化한다. 우리들의 최초의 이름들은 具體的인 것들이다. 그것들은 特殊한 事實들 혹은 行動들의 把握에 執着한다.”²⁷⁾ 人間은, 그 정신이 발전함을 따라, 구체적인 낱말들만 아니라, 가지가지 추상적인 낱말들을 만들어서 쓰게 된다. Cassirer 는 現實의 여러 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이 現實을 同一한 層에 並列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25) *Ibid.*, p. 24~25.

26) *Ibid.*, p. 25.

27) *An Essay on Man*, p. 135.

깊고 얇은 여러 층이 있는 것으로서 파악할 때, 그 現實의 여러 층에 對應하여 또한 言語의 여러 층이 있다. 이에 관하여 Cassir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言語의 直觀에 있어서 客觀的 現實은 自我의 세계에 그저 全體로서 맞서 있는 唯一의 等質的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 現實의 갖가지 층(Schichten)이 있고...나에 대해서 ‘가깝고’ 혹은 ‘먼’ 정도에 따라 客觀的인 것의 갖가지 段階가 더욱 분명히 區別되는 것이다.²⁸⁾

『象徴形式의 哲學』第1卷에서 Cassirer는 言語의 이 여러 段階 내지 層을 다음과 같은 順序로 다루고 있다.

- ① 感覺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 ② 直觀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 ③ 概念的 思考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 ④ 論理的 關係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이 여러 層의 言語의 性格을 究明함에 있어 Cassirer는 全世界에 걸친 言語現象에 대한 많은 言語學者들의 풍성한 研究로부터 資料를 얻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層의 言語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의 自發的·創造的 活動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여러 層의 言語에 대한 Cassirer의 考察 중 요긴하다 싶은 것을 아래에 추려 보기로 한다.

① 感覺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Cassirer는 近代의 言語心理學이 言語의 문제를 表現運動(Ausdrucksbewegungen)의 一般的 心理學 속에 집어 넣은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²⁹⁾ 그래서 그는 먼저 表現運動으로서의 言語인 몸짓言語(Gebärdensprache)와 낱말言語(Wortsprache)를 고찰한다. 몸짓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몸짓이요, 다른 하나는 흉내내는 몸짓이다. Wundt는 그의 『民族心理學』(Völkerpsychologie)에서, 인간의 팔과 손이 본래 對象物을 잡고 지배하는 器官이었는데, 이것이 進化하여 말없는 몸짓運動(Pantomimischer Bewegungen)의 原初的 形態를 생기게 했으며, 이와 같은 移行은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린 아이는 對象物이 너무 멀어서 손이 닿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잡으려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므로써 잡는 운동이 指示하는 운동으로 옮겨간다. 對象物을 잡으려고 거듭 試圖한 후에야 비로소 指示하는 운동이 바로 指示하는 운동으로서 獨立하게 된다.”³⁰⁾ Wundt의 이와 같은 觀察을 引用하면서 Cassirer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28) Ph. d. s. F., I. S. 229.

29) Ibid., S. 126.

30) Wundt, Völkerpsychologie I. 129f. (Ph. d. s. F., I, S. 128).

단순해 보이는 이 獨立에의 一步가 動物的인 것으로부터 人間에게만 특수한 것으로의 發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 중의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³¹⁾ 손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을 독일語로 Greifen in die Ferne라 하는데, 이 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먼 데를 잡는다」는 것이다. 이 「먼 데를 잡는」 일로써, 즉 指示하는 일에 의하여, 인간의 정신은 다른 동물의 수준을 넘게 된다. “최초의 이 一步에 의하여, 느끼고 意慾하는 自我는, 表象되고 意慾된 內容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빼어놓으며, 이렇게 하므로써 비로소 그것을 對象에로, 客觀的 內容에로 形成한다.”³²⁾ 그리고 사실상 「잡는다」(Greifen)고 하는 것이 「意味를 안다」(Begreifen 把握한다)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移行한다. “感覺的·身體的으로 잡는 것이 感覺的 指示作用이 된다. 그런데 이 後者 속에는 이미, 言語와 思考 속에 나타나는 高度의 意味機能의 萌芽가 들어 있다.”³³⁾

한편, 흉내내는 몸짓은 外部의 對象을 模倣하는 것이요, 그 對象의 여러 特質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模倣이 音聲을 통해서 될 때 模倣言語가 성립한다. Aristoteles는 言語는 事物의 模倣이요, 人間의 목소리가 模倣에 가장 適合하다고 보았다.³⁴⁾ 그러나 그는, 動物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感嘆의 소리가 象徴(Symbol)으로서 쓰이므로써만 言語의 音聲(Sprachlaut)으로 된다고 指摘하고 있다.³⁵⁾ 다시 말해서 言語의 模倣은 外部事物의 한갓 反復이 아니고, 自由로운 精神의 企圖다. 이런 의미에서 模倣은 이미 描出(Darstellung)에의 途上에 있다. 描出은 對象을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構造的 關係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構成的으로 產出하는 것이다. 描出의 몸짓에 있어서는, “한 對象의 像이, 마치 造型藝術이 한갓 模倣的 技術보다 더 自由로운 것처럼 더 自由롭게 形成된다.”³⁶⁾

이 描出의 機能이 몸짓 대신에 音聲을 手段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아주 새로운 自由와 깊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音聲의 流動性은 音聲에다가 하나의 아주 새로운 形成能力을 주고, 이것에 의하여 音聲은 表象內容의 固定된 明確性만 아니라, 表象過程의 가장 미묘한 動搖와 變動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音聲은 몸짓에 의한 다른 모든 表現手段보다도 훨씬 더 高度로 “分節化”(Artikulation)가 가능하며, 이러한 音聲의 分節化는 복잡하고 미묘한 思考의 分節化의 가장 適切한 道具가 된다. 言語의 起源에 관한 論文에서 Jakob Grim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音聲의 組織的 發展은 우리에게 分節化를 命하고, 人間의 言語는 分節化된 言語가 된다. 이것은 Homeros가 人間에게 준 形容詞 *οἱ μέρορες, μέρορες ἄνθρωποι* 혹은 *βροτοῖ*

31) *Ph. d. s. F.*, I. S. 128.

32) *Ibid.*, S. 128.

33) *Ibid.*, S. 129.

34) Aristoteles, *Rhetor* III, 1, 140a 20. (*Ph. d. s. F.*, I, S. 131).

35) *περὶ ἐρμηνείας* cap. 2, 16 a 27, (*Ph. d. s. F.*, I, S. 131).

36) Wundt, *a. a. O.*, I, 156. (*Ph. d. s. F.*, I, S. 132)

(人間은 그 소리를 나누는 자, 分節化하는 자)에 어울리는 일이다.”³⁷⁾ 分節化된 音聲의 誕生은, Goethe의 表現을 빌리면 “騷音이 樂音으로 다져지는”(Schall sich zum Tone rundet)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정신은 한갓 反射의 단계를 넘어서고, 象徴的 機能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感覺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의 章에서 Cassirer는 「表現運動으로서의 言語」에 이어, 「模倣的, 類比的, 象徴的 表現」을 논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言語의 始初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매우 뜻깊은 말을 하고 있다.

……直接的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接近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멀어짐 속에, 藝術的 形成作用의 價値 및 獨自性과 마찬가지로 言語의 形成作用의 價値와 獨自性이 있다. 直接的으로 우리 앞에 있는 存在(Dasein) 및 直接的 體驗으로부터의 이 距離야말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정신적으로 意識하게 되는 條件이다. 그러므로 言語도, 感覺의 印象과 感覺의 興奮에 대한 直接的 關係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音聲이 순전히 反復으로서만 있는 限, 즉, “意味”에의 意志와 함께 特殊한 意味의 契機가 결여되어 있는 限, 그것은 아직 言語音聲이 아니다.³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距離, 즉 直接的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의 인간의 정신의 距離라 하겠다. 이 距離 속에 인간의 정신의 意味賦與作用이 介入하고, 이렇게 되므로써 비로소 人間的 言語가 形成된다. Aristotel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刺戟과 興奮의 音聲에 대하여 순수한 意味의 音聲이 優位를 획득했을 때 人間的 言語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편, 地球上의 모든 言語에는 擬聲的 表現 즉 模倣的 表現이 있다. 아무리 高度로 발달한 文化言語에서도 擬聲的 表現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言語使用에 있어서, 個個의 感覺的 對象이나 感覺的 印象을 하나의 模倣音聲에 결부시킬 뿐 아니라, 質的으로 段階지어진 音聲의 全系列을 하나의 순수한 關係의 表現이 되게끔 한다. 이 關係의 形式 및 特性과 이 關係를 나타내는 音聲 사이에는 이제 直接的・具體的(materialen 物質的) 類似的 關係가 전혀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 인간은 模倣的 表現으로부터 類比的 表現에 도달한다. 第1段階인 模倣的 表現으로부터 第2段階인 類比的 表現으로의 移行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마도, 音樂의인 音調가 낱말의 意味의 區別 혹은 形式的・文法的 規定的 表現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言語에서다.³⁹⁾

인간의 言語는, 순전히 模倣的 혹은 類比的인 表現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이 範圍를 줄곧 擴大시키고 마침내 突破하려 한다. 인간의 言語는 音聲記號의 多義性이라고 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이 결함을 言語의 장점이 되게 한다. 多義性은 記號를 한갓 個別的인 記號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이 多義性은 個別的으로 “指示한다”고 하는 具體的 機能으로부터 “意味한다”고 하는 普遍的이고 普遍妥當的인 機能으로의 決定的 一步를 내어디딜 것을

37) Jakob Grimm,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1851(Kleine Schriften) S. 255 ff. (*Ph. d. s. F.*, I, S. 134).

38) *Ph. d. s. F.*, I, S. 138.

39) *Ibid.*, S. 143.

精神에게 강요한다. 이 機能에 있어서 言語는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感覺의 外被를 벗어 던지고, 模倣의인 혹은 類比的인 表現은 순전히 象徵的인 表現에 자리를 비킨다. 그리고 이 象徵的 表現은 새롭고 더 깊은 精神의 內容의 擔持者가 된다.

② 直觀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

言語를 支配하고 있는 精神的 綜合의 方式과 方向이 분명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直觀의 形式들”의 構成에 있어서요, 이 形式이라고 하는 媒體를 통해서만, 즉, 空間, 時間 및 數의 直觀을 媒介로 해서만 言語는 그 本質的으로 論理的인 일을 할 수 있다. 즉 印象들을 表象들대로 形成할 수 있다. 이런 觀點에서 Cassirer는 「直觀的 表現의 段階에 있는 言語」의 章에서 空間·時間·數와 이것들을 表現하는 言語를 고찰하고, 나아가 內的 直觀의 영역에 속하는 自我概念에 관한 言語表現의 本性을 밝히고 있다.

言語意識은 모든 思考의·觀念의 關係를 空間에 投影하고 空間 속에서 類比的으로 “模寫”함으로써 비로소 이 關係들을 파악하는 듯싶다. 言語意識은 함께, 나란히, 따로따로 같은 關係에서 비로소 갖가지 質의 聯關, 從屬關係, 對立 등을 표현하는 수단을 얻는다. 空間에 관한 낱말들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直接的·感覺的 印象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순수한 關係에 관한 表現이 자라서 나오는 최초의 萌芽가 들어 있다. 서로 다른 여러 言語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여러가지 質과 밝음을 지닌 母音들이 空間的 距離의 단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또 어떤 子音과 子音群에는 一定한 感覺的 傾向이 內在해 있다. 어린이의 최초의 意味없는 낱말들에서도 이미 “求心的” 傾向의 音聲群과 “遠心的” 傾向의 音聲群이 뚜렷이 구별된다. m과 n은 안으로의 方向을 나타내며, p, b, t, d 등의 破裂音은 밖으로의 方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自然스러운 音聲區別에 의하여 一人稱과 二人稱, 그리고 三人稱의 指示詞가 形成되어 나온다. 그리고 이 指示代名詞들의 形成은 言語形成의 根源의 “基本思想”(Elementargedanken)을 이룬다. 어쨌든, 言語에 있어서도, 空間的 場所와 空間的 距離의 엄밀한 區別은, 言語가 거기서부터 客觀的 現實을 構成하고 對象들을 規定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최초의 出發點이다.

場所 및 空間 表示의 具體化는 “對象”의 카테고리를 言語的으로 더욱 엄밀하게 만들어내는 手段이 된다. 言語가 定冠詞의 使用을 形成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冠詞의 목적이 實體의 表象을 더욱 명확하게 形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거니와, 한편, 그 冠詞의 根源이 空間的 表象의 영역에 속해 있음은 誤認할 餘地가 없는 일이다. 冠詞는 어디서나 指示代名詞의 영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최초의 명확한 場所的 區別들로부터 一般的인 空間規定 및 空間表示에 도달하기 위하여 言語가 나아가는 길은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方向을 취하고 있다. “空間 안의 地域들의 區別”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있는 地點으로부터 출발하여, 中心을 같이하고 넓어지는 圓의 모양으로 客觀的 全世界의, 즉 場所規定의 體系와 總體의, 分類에로 나아간다. “場所의 區別은 처음에는 特定한 物質의 區別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區別들 중에서 자기의 身體의 四肢의 區別이 그 이후의 모든 場所規定의 出發點이 된다. 人間에게 있어서 일단 자기의 身體의 像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즉, 人間이 身體를 自己完結의이고 構造를 가진 有機體로 파악하게 되면, 이 身體는 人間이 그것을 따라 世界 전체를 構築하는 모델로 쓰인다. 身體는, 人間이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언제나 되돌아와서 基準으로 삼는 根源의 座標面, 따라서 人間이 앞으로 나간 그의 進歩를 言語로 나타내기 위한 이름을 거기서 끌어내는 座標面이다.”⁴⁰⁾

어떤 場所를 그저 가리키는 表現에 비하면, 方向 및 方向區別의 表現은, 그것이 아무리 感覺的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하나의 새로운 精神의 契機를 내포하고 있다. 名詞的인 表現에는 언제나 딱딱한 데가 있는 데 반하여, 空間動詞에 의한 表現에서는 空間的 關係가 流動的으로 되기 시작한다. 순수한 行動에 대한 아직 전적으로 直觀的인 表現도, 순수한 關係에 대한 장래의 思想的 表現을 준비한다. 여기서도 그 規定은 대체로 자기의 身體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言語가 근거로 삼는 것은 身體의 개개의 부분이 아니고, 그 움직임이다. 言語의 根源의 直觀은 空間의 所與에 얽매어 있으나, 言語가 運動 및 순수한 活動의 表現으로 移行하자마자, 空間的 直觀을 넘어서는 데로 나아가게 된다. 空間 자체가 이제는 行動의 方向, 運動의 方向線·力線(Kraftlinien)의 總體로서 構築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言語는 空間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더 높은 次元의 規定作用에 의하여 時間的 關係의 엄밀한 區分과 表現에 도달한다. 時間의 方向과, 時間이 자기 속에 내포하고 있는 關係의 多樣性은 變化의 現象에서만 파악되고 固定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서 變化가 시작되는 어떤 特定한 狀態의 表現으로서의, 또 移行的 움직임 자체의 表現으로서의 動詞야말로 時間的 規定의 唯一의 本來的 擔持者다.”⁴¹⁾ 言語가 최초로 파악하는 것은, 心理的으로 말하여, 어떤 事象이나 行爲에서 볼 수 있는 어떤 時間的인 “形態의 質”(Gestaltqualitäten)이다. 言語는 本來的인 關係段階들로서의 “時稱”의 명확한 區分에 移行하기에 앞서, “動作方式들”(Aktionsarten)의 差異를 분명히 말하므로써 그 質的 差異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相對的인 時間段階의 명확한 表示는 비교적 後期の 產物이요, 이에 대하여 어떤 事象이나 行爲의 一般的인 “時間形態”(Zeitgestalt)의 表現은 思考와 言語의 초기의 層에 속한다.

空間의 表象에서 時間의 表象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數의 表象으로 나아갈 때 直觀의 영역은 일단 完結된다. “數는 言語記號(Wortzeichen)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써만 그 순수한

40) *Ibid.*, S. 159.

41) *Ibid.*, S. 175.

概念的 本性的 把握에로의 길이 열린다. 그리하여 言語가 창조한 數記號는 純粹數學이 數라고 規定하고 있는 構成物에 대한 不可缺의 前提가 된다.”⁴²⁾

數關係의 區別은, 空間關係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人間의 身體와 그 四肢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서부터 感覺的·直觀的 世界의 전체에로 퍼져 나간다. “자기의 身體는 어디서나 최초의 原始的 썸의 基本모델이다.”⁴³⁾ 따라서 數概念은, 言語概念이 되기 전에, 순전히 흉내내는 손의 概念 혹은 身體概念이다. 에베어들(Eweer)은 손을 펴고 손가락으로 썸다. 거기에는 順序가 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하여 왼손 다음에는 오른 손의 손가락으로 세어 간다. 손가락으로 세는 것이 끝나면 발가락으로 세기도 한다. 하여간, 이와 같은 順序, William Hamilton의 이른바 “繼起에 있어서의 秩序”(order in progression)는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現象이다.

言語로 표현되는 數의 具體的 思考는 두 가지 作用, 즉 空間意識의 作用과 時間意識의 作用을 利用한다. 言語는 空間的 對象들의 區別로부터 集合의 多數性的 概念과 그 表現에 도달하며, 時間的 行爲들의 區別로부터 分離와 個別化의 表現에 도달한다. 複數形을 만드는 形式에 있어서, 多數의 것에 대한 精神的 把握의 이 두 가지 型이 뚜렷이 나타난다. 多數形의 形成은, 한편으로는 物的 複合體의 直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一定한 時間的 過程의 局面들의 리드미컬하고 周期的인 回歸의 直觀에 의하여 생긴다.

數의 意識이 최초로 전개된 것은 對象이나 事象의 한갓 物的인 並在나 離在에서가 아니라, “나”와 “너”의 分離에서였다. 썸하는 행위는 “나”, “너”, “그”의 直觀과 根源의으로 결부되어 있다. Humboldt에 의하면, 言語의 可能性은 말을 거는 것과 對答을 條件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와 너 사이에 생기는 緊張과 分裂 위 에 서 있다.

Humboldt가 力說한 바와 같이, 自我感情은 모든 言語形成의 根源的이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導出할 수 없는 構成要素다. 自我 즉 자기 자신에 대한 表現도 처음에는 名詞의 領域, 實體的·對象的 領域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의 모든 言語圈에서 우리는 對象的 表現에 由來하는 自我의 表現을 볼 수 있다. 自我의 觀念이 명확히 規定되어 言表되어 있는 경우에도 言語는 이 觀念에 처음에는 對象的 表現을 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言語가 人格의 關係를 表現함에 있어, 대뜸 본래의 人稱代名詞를 사용하지 않고 所有代名詞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所有代名詞에 있어서 所有的 觀念은 對象的인 것과 主體的인 것 사이에 독특한 中間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自我概念의 形成은 代名詞에 묶여 있지 않고, 다른 言語領域, 가령, 名詞와 動詞의 媒介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動詞에 있어서는 自我感情의 가장 섬세한 個別化와 뒤양

42) *Ibid.*, S. 185.

43) *Ibid.*, S. 187.

스가 表明될 수 있다.

③ 概念的 思考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言語는, 概念의 一般化하고 包攝하는 形式으로 移行할 수 있기 전에, 하나의 다른 순전히 質的인 概念形成의 方式(qualifizierenden Art der Begriffsbildung)을 가져야 했다. 言語에 있어서 命名은 어떤 물건이 속해 있는 類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直觀的인 全體內容에서 파악되는 어떤 個別的 性質에 결부된다. 精神의 作業은 어떤 內容을 다른 內容 밑에 두는 데 있지 않고, 그 內容이 하나의 具體的인 그러나 未分化된 全體로서, 거기서 一定한 特徵의 契機가 끄집어 내어지고 考察의 焦點에 놓여지게 되므로써 더욱 特殊化되는 데 있다. 精神의 視線의 이 集中 위에 命名의 可能性이 자리잡고 있다. 그 內容이 받는 새로운 思考的 刻印이야말로 그 內容의 言語的 表示의 必然的 條件이다.⁴⁴⁾

概念 一般에 대하여 그 形成의 原理는 “抽象”의 原理가 아니라 오히려 “選擇”의 原理라고 흔히 말해졌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言語에 있어서의 概念形成의 形式에 들어맞는다. 빛은 對象으로부터 精神의 영역으로 비취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行爲 자체의 中心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가며, 이렇게 되므로써 비로소 直接的인 感覺의 세계가, 안으로부터 비취어진, 直觀的 및 言語的으로 形成된 세계가 되는 것이다.⁴⁵⁾

言語가 特定한 直觀的 領域에 대하여 特定한 名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後者들을 결합하여 그 內容들의 실질상의 共屬性(Zusammengehörigkeit)이 言語形式에서도 명료하게 나타나게끔 했을 때, 言語는 類의 一般性에의 길로 一步 前進한다. 一定한 概念的 意味系列에 대하여 거기 대응하는 一定한 音系列을 나란히 세우므로써 音과 意味를 긴밀하게 결부시키는 이 努力은, 순전히 質的 差異를 파악하는 言語의 概念形成으로부터 類的 概念形成으로의 前進를 특징짓는다.⁴⁶⁾

類形成(Klassenbildung)의 方式은 諸 言語를 種의으로 區別하는 “內的 形式”의 한 本質的 契機다.⁴⁷⁾ 言語는 多樣的 것의 綜合에 있어서 理論的 觀點만 아니라 想像力의 觀點에 의해서도 支配된다. 따라서 言語的 “概念形成”은 대부분의 경우 知識內容을 論理的으로 比較하고 結合하는 일로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言語的 構像力(Sprachphantasie)의 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言語의 本質 자체로 말미암는 일이다. 系列形成의 形式은 결코 한갓 個個의 內容의 客觀的 “類似性”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主觀的 構想力의 움직임에 따른다. 그러므로 言語가 類形成으로 인도되는 動機는 原始的인 神話的 概念形式 및 類 區分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다. 여기

44) *Ibid.*, S. 255 參照.

45) *Ibid.*, S. 261 參照.

46) *Ibid.*, S. 266~267 參照.

47) *Ibid.*, S. 270 參照.

서 言語는 冥토스(神話)와 로고스의 境界에 서 있으며, 理論의 世界考察과 美的 世界考察의 中間에 서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言語的 類形成의 形式, 즉 名詞를 男性・女性・中性的의 性(Geschlechter)으로 나누는 일에도 半은 神話的이고 半은 美的인 動機가 침투해 있다.⁴⁸⁾

類 區分의 原理가 한번 발견되면, 그것은 名詞의 形成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言語의 文章論的(syntaktische) 構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 關聯, 그 精神의 “分節化”의 固有한 表現이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 言語의 想像力의 作用은 언제나 言語의 思考의 一定한 方法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된다. 여기서도 言語는 感覺的이고 想像的인 것의 세계에 묶여 있고 얽혀 있으면서도 論理的・一般的인 것으로 향하는 傾向과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傾向과 힘에 의하여 言語는 그 形式을 더욱 순수하고 獨立的인 精神性으로 解放시켜 간다.⁴⁹⁾

④ 論理的 關係의 表現으로서의 言語

『象徴形式의 哲學』第 1 卷『言語』의 第 5 章의 제목은 「言語와 순수한 關係形式들의 表現—判斷의 영역과 關係概念」(Die Sprache und der Ausdruck der reinen Beziehungsformen. Die Urteils-sphäre und die Relationsbegriffe)으로 되어 있다. 이 章에서는 判斷에 대응하는 文(Satz)에 있어서 主語와 述語를 關係지어주는 繫辭(Kopula)의 意味와 그 形式이 重點의으로 高찰되고 있다.

個個의 낱말이 아니고 文이야말로 모든 言語形成의 참된 根源의 要素다. 이 認識은, Humboldt가 言語의 哲學的 考察을 위하여 決定的인 것으로 본 基本的 洞察이다. Humbold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言語의 發生을, 낱말들에 의한 對象의 表示에서 시작되어 거기서부터 그것들이 결합되어 가므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現實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Rede)이 이에 先行하는 낱말들의 合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이 말하는 것 전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⁵⁰⁾ 言語는 Aristoteles의 이론바, 全體가 部分에 先行하는 하나의 有機體다. 言語는 먼저 複合的인 全體的 表現으로 시작하여, 이것이 차츰 要素들로 나뉘고, 相對的으로 獨立한 下位의 單位로 分解되어간다. 그러므로 言語는 언제나 끈을 이룬 統一體로서 나타난다. 그 表現의 어느 하나도 하나하나의 物質的인 意味音聲이 그저 並列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어느 表現에나, 個個의 要素 사이의 關係의 表現에 단 이바지하고 이 關係 자체를 여러가지 方式으로 分節化하고 段階지어주는 規定들이 동시에 들어 있다.⁵¹⁾ 中國語에서는 語順(Wortstellung) 즉 낱말의 자리가 가지가지 論理的・文法的 關係를 나타낸다.⁵²⁾

48) *Ibid.*, S. 273 參照.

49) *Ibid.*, S. 279 參照.

50) *Einleit. zum Kawi-Werk* W. VII, 72 f. (*Ph. d. s. F.*, I, S. 280~281).

51) *Ph. d. s. F.*, I, S. 281~282 參照.

52) *Ibid.*, S. 283 參照.

모든 文은 이미 그 形式 속에 적어도 內的 分節化의 可能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그러한 分節化의 要求를 내포하고 있다.⁵³⁾ 그런데 言語가 關係라고 하는 순수한 카테고리를 붙잡는 것은 오직 머뭇거리면서요, 그것은 다른 카테고리, 특히 實體와 屬性의 카테고리를 거쳐서 비로소 얻어진다.⁵⁴⁾ Humboldt가 言語에 있어서의 自動的·綜合的 措定(Setzen)이라고 이름 붙인 것, 그리고 그가 動詞 이외에 특히 接續詞와 關係代名詞의 使用에 있어서 두드러졌다고 본 것은, 言語形式이 多様な 中間段階를 거쳐서 가깝스로 도달하는 최후의 理念的 目標의 하나다.⁵⁵⁾ 言語의 發達에 있어서, 言語가 繫辭에서 표현되는 純粹한 存在의 抽象에까지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천천히 된 일이다. 純粹한 先驗的 關係形式으로서의 “存在”의 表現은, 根源의으로는 實體의·對象의 現存在(Dasein)의 直觀 속에서 성립하여, 또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言語에 있어서 언제나 나중에 갖가지 媒介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⁵⁶⁾

繫辭에 나타나는 普遍的인 關係表現에도, 特殊한 關係概念의 모든 言語形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言語의 基本傾向이 있다. 즉, 거기에도, 空間의 關係, 時間의 關係, 數量의 關係, 自我의 關係에서 볼 수 있었던, 感性的인 것에 의한 精神的인 것의, 精神的인 것에 의한 感性的인 것의 相互規定이 있다. 感性的인 것과 知性的인 것의 兩極의 對立이란 것을 가지고서는 言語의 固有한 內容을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言語는 그 모든 作用, 그 進步의 各局面에 있어서, 感性的인 동시에 知性的인 하나의 表現形式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⁷⁾

VII. 結 語

Cassirer의 哲學의 精神은 世界市民的인 것이라 하겠다. 그는 政治的 現實에 대해서도 世界市民的 態度를 취했고, 眞理를 탐구하는 그의 學問的 態度 역시 世界市民的이었다. 言語研究에 대한 태도 역시 世界市民的이어서 결코 편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特定한 言語를 다른 모든 言語보다 優越하다는 主張 따위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言語를 보는 그의 눈은 全世界를 視野에 둔다.

A.W. Schlegel은, 言語가 無組織하고 無定形한 상태로부터 孤立的, 膠着的, 屈折的 段階를 거쳐 발전했으며, 屈折的 言語들이야말로 言語進化의 최후의 단계에 있는 참으로 有機的인 言語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Cassirer는, B. Karlgren의 原始中國語研究⁵⁸⁾

53) *Ibid.*, S. 286 參照.

54) *Ibid.*, S. 291~292 參照.

55) *Ibid.*, S. 293 參照.

56) *Ibid.*, S. 294 參照.

57) *Ibid.*, S. 299~300 參照.

58) B. Karlgren, “Le Proto-Chinois, langue flexionelle,” *Journal asiatique*(1902).

에 의거하여, 中國語가 現在의 孤立的 段階를 가졌었음을 例로 들면서 反論을 펴고 있다.⁵⁹⁾ 어떠한 言語도 그 나름의 價値를 지니고 있고, 또 그 나름의 形式을 갖추고 있다. “가장 未開한 民族의 言語들도 결코 形式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복잡한 構造를 드러내고 있다. …人間言語의 모든 形態는 그것들이 人間의 感情과 思想을 명백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하는 限 完全하다.”⁶⁰⁾

特殊한 言語의 價値에 대하여 判斷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Humboldt도 屈折의 言語를 모범으로 여기고, 屈折의 形態를 die einzig gesetzmäßige Form 즉 엄격한 規則들을 따르는 유일한 形態로 보았다. 그러나 Cassirer는 現代의 言語學者들의 연구에 의거하여 이러한 Humboldt의 견해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려 言語형을 비교해보면 어떤 한 형이 다른 형보다 명확한 長點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어떤 형의 缺點으로 보는 것이 다른 여러 長點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⁶¹⁾ 하여간 言語를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떤 한 言語를 특별히 좋아하고 그것에다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영어나 아메리카 土人의 言語나 그밖의 어떤 言語든지 냉정하게 대하며 또 한결같은 흥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 Cassirer의 立場이다.

그리고 만일 言語에 統一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實體의 統一일 수는 없고 오직 機能的 統一일 따름이라고 Cassirer는 말한다.⁶²⁾ 言語마다 그 內容이 다르며, 音聲體系나 文法體系도 다르다. 그러나 目的에 대한 適合性에 있어서 모든 言語는 一致하고 있다, 言語는 社會的要求를 따라 생기며, 人間의 社會的 및 文化的 生活의 서로 다른 條件들을 따라 多樣하게 形成되지만, 각기 社會의 온갖 狀況에 順應하며 社會生活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게끔 꾸며지는 것이다.

Cassirer는 人間精神의 象徴的 機能과 言語 내지 言語使用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 劇的인 例로서 Hellen Keller와 Laura Bridgman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히 記述하고 있다.⁶³⁾ Hellen Keller는 병어리요 귀머거리로 태어났다. 그녀의 선생 Mrs. Sullivan의 報告에 의하면, 그녀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아침, 그 어린이는 세수를 하면서 물의 이름을 알고 싶어했다 한다. 그래서 Mrs. Sullivan은 그 어린이의 손바닥에 water라고 한 자 한 자 써주었다 한다. 그 후 그 어린이는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 모든 물건의 이름을 물었다고 한다. Mrs. Sullivan의 報告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Hellen은 그녀의 教育에 있어 第二의 큰 前進의 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指文字

59) *An Essay on Man*, p. 128~129.

60) *Ibid.*, p. 129.

61) *Ibid.*, p. 130~131.

62) *Ibid.*, p. 130.

63) *Ibid.*, p. 33~38.

(manual alphabet)는 그녀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Cassirer는 이러한 Hellen Keller의 精神的變化에 대하여, 그것은 이 어린이가 보다 主觀的인 상태에서부터 客觀的인 상태로, 한갓 情動的인 태도로부터 理論的인 태도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一般的으로 어린이가 事物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무슨 뜻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깊은 洞察의 말을 하고 있다.

事物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므로써 어린이는 이미 만들어진 經驗的對象들에 대해서 그가 전에 가졌던 지식에다가 그저 人爲的記號들의 目錄을 添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 對象들의 概念들을 形成하는 것, 客觀的인 世界와 接觸하는 것을 배운다. 이때 이후로 어린이는 보다 확고한 地盤 위에 서게 된다. 그의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變動해 마지 않는 知覺들과 그의 몽롱한 感情들은 새로운 모양을 띠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하나의 固定된 中心, 思考의 焦點으로서의 이름의 틀에 結晶化한다고 하겠다. 이름의 도움이 없으면 客觀化의 過程에서 이루어진 모든 새로운 進歩가 항상 다음 순간에 消失될 憂慮가 있다. 어린이가 意識的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이름들은 소경이 길을 더듬어갈 때 도움이 되는 지팡이에 비길 수 있다. 그리고 言語는, 하나의 全體로 볼 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때문이 된다. 여기서의 모든 進歩는 하나의 새로운 展望을 열며 우리의 具體的인 經驗을 넓히고 풍부케 한다. 말하려는 熱意는 이름들을 배와 알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한갓 욕망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客觀的인 世界를 探索하고 정복하려는 욕망의 표적이다.⁶⁴⁾

말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世界와 交섭하며, 世界를 이해하며, 또 世界를 지배하는, 人間精神의 產物이다. 말은 생각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또 世界觀의 基盤이 된다. 이런 까닭에 어떤 새로운 言語를 배우는 것이 어려서부터 배와 알고 있는 言語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고 Cassirer는 말한다.⁶⁵⁾ 成人에게는 客觀的인 世界가 言語活動의 結果로 이미 一定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言語活動은 다른 모든 活動의 型을 짜내고 있다. 우리의 知覺들, 直觀들, 및 概念들은 우리의 母國語의 用語들 및 言語形式들과 合一되어 있다. 낱말들과 事物들의 紐帶를 푸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하여간 어떤 言語에나 그 固有한 世界把握의 形式이 있다. 그러므로 外國語를 알므로써 자기 나라의 말의 特性도 더욱 잘 알게 된다. 그러기에 Goethe는 “外國語를 모르는 이는 자기 나라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⁶⁸⁾ 고 말하였던 것이다. 여러 言語를 비교해보면, 정확한 同意語가 하나도 없다. 두개의 言語로부터 서로 對應하는 用語를 뽑아볼 때 그것들이 同一한 對象이나 行動을 指示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對象의 이름은 그 對象의 本性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한 이름의 機能은 언제나 한 事物의 特殊한 면을 강조하는 데 局限되어 있다. 具體的인 事態를 남김없이 指示하는 것이 이

64) Hellen Keller, *The Story of My Life*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02, 1903), Supplementary Account of Hellen Keller's. Life and Education, pp. 315 ff. (*An Essay on Man*, p. 34).

65) *An Essay on Man*, p. 131.

66) *Ibid.*, p. 132~133.

67) *Ibid.*, p. 133 參照.

68) Goethe, *Sprüche in Prosa*, Werke, XLII, pt. II, 118. (*An Essay on Man*, p. 133).

름의 機能이 아니라, 다만 어느 한 면을 도려내어 거기 주의하는 것이 그 機能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모든 言語는 각기 자기 나름의 世界像을 가지면서 독특한 言語的 世界를 전개한다. 그러나 言語的 思考의 行爲 자체, 즉 集中과 凝縮의 過程은 한결같은 바가 있다.⁶⁹⁾

69) *An Essay on Man*, p. 133~134 參照.

Cassirer's Philosophy of Language

Choe, Myung-kwan

Résumé

The type of Cassirer's philosophy of language is unique. He is concerned with τὸδὲ τί of language as such.

This paper is not any criticism of Cassirer's philosophy of language. It is rather an exposition by means of Cassirer's main work,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and *An Essay on Man*.

Cassirer aims a critique of human culture in general. He deals with language as a necessary knot in the circle of human speech.

He stands on a philosophical idealism, and he tries to overcome and reject copy theory (Abbildtheorie). His idealistic point of view is expressed throughout his work. The following is but one example:

Jede echte geistige Grundfunktion hat mit der Erkenntnis den einen entscheidenden Zug gemeinsam, daß ihr eine ursprünglich-bildende, nicht bloß eine nachbildende Kraft innewohnt. Sie drückt nicht bloß passiv ein Vorhandenes aus, sondern sie schließt eine selbständige Energie des Geistes in sich, durch die das schlechte Dasein der Erscheinung eine bestimmte „Bedeutung“, einen eigentümlichen ideellen Gehalt empfängt. Dies gilt für die Kunst, wie es für die Erkenntnis gilt; für den Mythos wie für die Religion. Sie alle leben in eigentümlichen Bildwelten, in denen sich nicht ein empirisch Gegebenes einfach widerspiegelt, sondern die sie vielmehr nach einem selbständige Prinzip hervorbringen. Und so schafft auch jede von ihnen sich eigene symbolische Gestaltungen, die den intellektuellen Symbolen, wenn nicht gleichartig so doch ihrem geistigen Ursprung nach ebenbürtig sind. Keine dieser Gestaltungen geht schlechthin in der anderen auf oder läßt sich aus der anderen ableiten, sondern jede von ihnen bezeichnet eine bestimmte geistige Auffassungsweise und konstituiert in ihr und durch sie zugleich eine eigene Seite des „Wirklichen“.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Erster Teil, *Die Sprache*, p. 9)

However, Cassirer does not neglect empirical data of linguistic researches. He employs these data broadly; his perspective is really universal.

Surveying linguistic theories Cassirer rejects both onomatopoeic thesis and interjectional theory. He does not allow any existence of animal language. He emphasizes that propositional language can be found only among human beings while emotional language may be found throughout the animal world. Cassirer synthesizes the subjective side and the objective side of human mentality in language use, and sees the very shaping of language in that synthesis. He says,

Die Sprache etwa kann in ihren frühesten Bildungen gleich sehr als reiner Ausdruck des Inneren, wie des Äußeren, als Ausdruck der bloßen Subjektivität, wie der bloßen Objektivität gefaßt werden. In der ersteren Hinsicht scheint der Sprachlaut nichts anderes als den Erregungs- und Affektlaut, in der zweiten nichts anderes als den einfachen Nachahmungslaut zu bedeuten. Die verschiedenen spekulativen Ansichten, die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geäußert worden sind, bewegen sich in der Tat zwischen diesen beiden Extremen, deren keines jedoch den Kern und das geistige Wesen der Sprache selbst trifft. Denn durch sie wird weder ein einseitig Subjektives, noch ein einseitig Objektives bezeichnet und zum Ausdruck gebracht, sondern es trifft in ihr eine neue Vermittlung, eine eigentümliche Wechselbestimmung zwischen beiden Faktoren ein. Weder die bloße Entladung des Affekts, noch die Wiederholung objectiver lautlicher Reize stellt demgemäß schon den charakteristischen Sinn und die charakteristische Form der Sprache dar: diese entsteht vielmehr erst dort, wo beide Enden sich in eins verknüpfen und dadurch eine neue, vorher nicht gegebene Synthese von „Ich“ und „Welt“ geschaffen wird. (*op. cit.*, p. 26)

Cassirer's hero in the field of philosophy of language is Wilhelm von Humboldt. Cassirer borrows many important ideas from Humboldt. According to Humboldt, the real difference between languages is not a difference of sounds or signs but one of “world-perspectives” (*Weltansichten*). Language must be looked upon as an *energeia* rather than as an *ergon*. It is not a ready-made thing but a continuous process; it is the ever-repeated labor of the human mind to utilize articulated sounds to express thought. (Humboldt, *Gesammelte Schriften*, p. 46; *An Essay on Man*, p. 120–121)

Meanwhile, it is interesting that Noam Chomsky relates Humboldt to Cartesian linguistics. What he calls “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 is quite in accord with what Cassirer calls “ursprünglich-bildende Kraft” which echoes Humboldt's fundamental thought. Humboldt talks about „ein fortgehendes Erzeugnis und Wiedererzeugnis des wortbildenden Vermögens.“

Cassirer asserts that there are stages in language as in reality. He says,

. . . für die Anschauung der Sprache die objektive Wirklichkeit nicht eine einzige homogene Masse bildet, die der Welt des Ich einfach als Ganzes gegenübersteht, sondern daß hier verschiedene Schichten dieser Wirklichkeit bestehen, . . . daß sich verschiedene Stufengrade des Ob-

jektiven, je nach seiner größeren ‚Nähe‘ oder ‚Ferne‘ zum Ich, noch deutlich gegeneinander absondern. (*op. cit.*, p. 229)

Thus, Cassirer discusses language in four stages:

- 1) language in the phase of sensual expression (sinnlichen Ausdruck)
- 2) language in the phase of intuitive expression (Anschaulichen Ausdruck)
- 3) language as expression of conceptive thinking (begriffliche Denken)
- 4) language as expression of logical relation (logische Beziehungsformen)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human speech evolves from a first comparatively concrete state to a more abstract state. First of all, Cassirer pays attention to the act of grasping by hand. Repeated act of grasping leads to the movement of pointing. Cassirer says,

Die sinnlich-physische Greifen wird zum sinnlichen Deuten—aber in diesem letzteren liegt bereits der erste Ansatz zu den höheren Bedeutungsfunktionen, wie sie in der Sprache und im Denken hervortreten. (*op. cit.*, p. 129)

Though manual speech might have been first means of expression of thought in human history, gradually man finds voice to be more useful means of expression. Human voice most fits to highest degree of articulation. The birth of articulated sound is something like „Schall sich zum Tone rundet.“

Then, human speech develops from imitative expression to analogical expression, and then from this latter to symbolic expression. In this connexion Cassirer says.

. . . also nicht in der Nähe zum unmittelbar-Gegebenen, sondern in der fortschreitenden Entfernung von ihm liegt der Wert und die Eigenart der sprachlichen Gestaltung wie der Wert und die Eigenart der künstlerischen Gestaltung beschlossen. Diese Distanz von unmittelbarem Dasein und vom unmittelbaren Erleben ist die Bedingung seiner Sichtbarkeit, seiner geistigen Bewußtheit, Auch die Sprache beginnt daher erst dort, wo das unmittelbare Verhältnis zum sinnlichen Eindruck und zum sinnlichen Affekt aufhört. Der Laut ist noch nicht Sprachlaut, solange er sich rein als Wiederholung gibt; solange ihm mit dem Willen zur „Bedeutung“ auch das spezifische Bedeutungs-moment fehlt. (*op. cit.*, p. 138)

The direction of mental synthesis which governs language becomes clear first of all in composition of forms of intuition (Anschauungsformen). By means of intuition of space, time and number, language can perform its essentially logical work. The strict distinction of spatial place and distance is the starting point from which language goes to construction of objective reality. Meanwhile human body is the model according to which man constructs the whole world. „Hier besitzt er eine ursprüngliche Koordinationsebene, auf die er sich im weiteren Fortgang immer wieder zurückzieht und zurückbezieht—und der er demge-

mäß auch die Benennungen entnimmt, die dazu dienen, diesen Fortgang sprachlich zu bezeichnen.“ (*op. cit.*, p. 159)

Language reaches to the division and expression of temporal relation through more difficult and higher order of characterizations (Bestimmungen). „Der Sinn der Zeit und die Mannigfaltigkeit der Beziehungen, die sie in sich faßt, kann nirgends anders als am Phänomen der Veränderung ergriffen und fixiert werden. Das Verbum, als Ausdruck eines bestimmten Zustandes, von dem die Veränderung anhebt oder als Bezeichnung des Aktes des Übergangs selbst, erscheint daher als der eigentliche und einzige Träger der zeitlichen Bestimmungen.“ (*op. cit.*, p. 175)

In conception of number, there is an order in progression. Yet it was neither in being put together nor being separate but in separation of “I” and “you” that the consciousness of number first took place and developed.

As for language as expression of conceptual thinking, Cassirer points out that language was obliged to have a qualitative way of concept formation (qualifizierenden Art der Begriffsbildung) before it passes into generalizing and subsuming forms of concept. The principle of concept formation in general is not that of abstraction, it is rather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the way of formation of class concept is the essential moment of inner forms which distinguish species of language. The formation of classes comes out not of logical comparison and combination but of linguistic imagination (Sprachphantasie). „Die Motive, durch welche die Sprache in ihren Klassenbildungen geleitet wird, scheinen daher durchweg, soweit uns überhaupt ein Einblick in sie verstattet ist, den primitiven mythischen Begriffsformen und Klasseneinteilungen noch nahe verwandt zu sein. Auch hier bewährt sich, daß die Sprache als geistige Gesamtform auf der Grenze zwischen Mythos und Logos steht, und daß sie andererseits die Mitte und Vermittlung zwischen der theoretischen und der ästhetischen Weltbetrachtung darstellt. Daß auch die uns nächstliegende und geläufigste Form der sprachlichen Klassenbildung, daß auch die Scheidung der Nomina in die drei „Geschlechter“ des Maskulinum, Femininum und Neutrum von solchen halb mythischen, halb ästhetischen Motiven durchsetzt ist, tritt in den Einzelanwendungen, die dieses Prinzip erfährt, oft noch unverkennbar hervor.“ (*op. cit.*, p. 273)

In fifth chapter of *Die Sprache,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which deals with language as expression of logical relations, Cassirer seems to follow Humboldt's view that sentence (Satz) is prior to words; and he points out that language could reach but slowly to abstraction of pure being expressed in copula. Anyway, language appears at its every operation and at each step of progress as a form of expression which is sensual and at the same time intellectual zugleich sinnliche und intellektuelle Ausdrucksform).

Cassirer's attitude in dealing with languages is cosmopolitan as in his attitude toward

politics. Against Humboldt's view that flexional language is most progressed one, he regards all forms of human speech to be perfect in so far as they succeed in expressing human feelings and thoughts in a clear and appropriate manner. Thus each form of human speech throughout the world has its unique world-perspective and develops its unique linguistic realm. However, the act itself, the process of concentration and condensation, is the same.

